

“문옥경, 신선한 캐릭터...배우 인생 중요 포인트될 듯”

‘정년이’ 속 여성국극황태자역 “정년의키다리아저씨요”

드라마 ‘정년이’에는 남자 배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도, 라이벌도, 로맨스의 대상도, 심지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자님’도 여자다. ‘정년이’ 속 명실상부한 여성국극 황태자, 문옥경 역을 맡은 정은채(38)를 만났다. 극 중 문옥경은 1960년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매란국극단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도맡으며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국극 배우다. 정은채는 문옥경에 대해 “대본에는 매란국극단의 얼굴이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라고 나온다”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년이

란 원석을 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길잡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따뜻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을 맡으면서 정은채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쇼트컷’ (짧은 머리)를 한 적이 없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라면서도 “일작 속 옥경이의 이미지가 있고, 캐릭터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외형적 변화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탄생한 문옥경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간 정은채가 보여준 드라마 ‘안나’에서의 철없는 부잣집 딸, ‘파친코’에서



배우 정은채 <프로젝트 호수 제공> “받아보지 못했던 캐릭터였다”며 “큰 도전이었지만 제 배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싶었다”고 돌아봤다. 여자 배우와 제작진이 가득한 현장

은 그에게 마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경험해 본 현장 가운데 가장 여자가 많았다”며 “제작진도, 배우도 여성이고 여성 스태프도 많았다. 여자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화기에애하고 떠들썩한 가운데 잘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학교에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다음 작품에서는 멜로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가 언제까지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때의 저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나면 좋겠네요. 발랄하고 귀엽고 따뜻한 멜로를 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美 ‘빌보드 200’ 두 번째 정상

그룹 에이티즈가 11번째 미니음반 ‘골든아워 : 파트2’에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한국어 앨범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에이트’(A Part.2)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자체 통산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는 25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 아워 : 파트 2’가 18만4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전했다. 빌보드는 “‘골든 아워 : 파트 2’는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고, 비(非) 영어 앨범이 1위를 기록한 26번째 사례이자 올해 한정으로는 세 번째 사례”라며 올해

앞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한국어 앨범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에이트’(A Part.2)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자체 통산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는 25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 아워 : 파트 2’가 18만4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전했다. 빌보드는 “‘골든 아워 : 파트 2’는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고, 비(非) 영어 앨범이 1위를 기록한 26번째 사례이자 올해 한정으로는 세 번째 사례”라며 올해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6일 천문역연 (062)673-2427
	쥐띠: 불성실한 사람을 멀리하고 듣기 싫은 말을 귀담아들어야 이득이겠다. 36년생 무거운 짐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니 어깨가 한결 가볍다. 48년생 뒤로 물러서다가 자중수를 두지 말고 공격적인 형태부터 갖추어라. 60년생 아쉬움이 많을 때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72년생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몸이 가는 방향은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게 공통점을 빨리 찾아라. 96년생 길이나 나라도 기어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 안타깝다.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노란색	
	소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 37년생 지나친 의미 부여 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어야 한다. 49년생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도모하는 일이 유익하니 함께 하라. 61년생 굶어치는 강물에 몸을 맡기지 말고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73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새로운 것을 향해 몸을 움직이니 흥미롭다. 85년생 상대방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97년생 변화에 흔들리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행운의 수: 1.3 행운의 색: 흰색	
	호랑이띠: 혼자인 것 같은 아슬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기다림이 지혜다. 38년생 수맥의 흐름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 50년생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62년생 의욕이 충만한 모습은 나쁘지 않아도 두서없이 허둥대면 곤란하다. 74년생 술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지 말고 마음을 놓자. 86년생 나서야 할 곳과 아닌 곳을 선별하는 일이 보기보다는 힘든 작업이다. 98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행운의 수: 2.7 행운의 색: 연두색	
	토끼띠: 한고비 돌아 서산에 닿으니 지나온 길이 영롱하게 기억에 남는다. 39년생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입가에 미소가 돈다. 51년생 자신의 의견과 상충하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교류부터 먼저 나누라. 63년생 기존에 하던 일을 계승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변화를 도모할 시점이다. 75년생 마음을 짓누르던 일이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고 일상에 전념할 것. 87년생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99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운의 수: 0.8 행운의 색: 파란색	
	용띠: 선두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끈을 절대 놓지 마라. 40년생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다. 52년생 산에 올라가 목청을 돋우니 산천 초목이 메아리로 돌아오는 형세다. 64년생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평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76년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덕을 쌓고 만민에게 존경을 받는다. 88년생 이해독실을 제대로 따지는 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 00년생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고 아닌 사람은 고단한 날이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검은색	
	뱀띠: 인접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으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다. 41년생 기호에 맞는 것만 챙기면 주변에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법이다. 53년생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일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65년생 밀면 무너지고 놔두면 흩어질 위험성이 보이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77년생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두고 일을 추진하라. 89년생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91년생 선이 굵은 사람은 약간의 손해가 있어도 시간이 가면 통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수: 6.9 행운의 색: 자주색	
	말띠: 주변의 권유에 귀 기울이는 건 상관 없지만 지금은 때가 이른 느낌이다. 42년생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시비가 엇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날이다. 54년생 무뎠던 모습으로 주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차분하게 다가서자. 66년생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멀리 움직이는 건 이름지 못한 행동이다. 78년생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라. 새로운 일말을 찾아서 즐겨보길 바란다. 90년생 내일로 미루도 똑같은 테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끝내라. 02년생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행운의 수: 6.7 행운의 색: 회색	
	양띠: 눈과 귀를 한껏 열어드는 사람은 재물을 얻고 아닌 사람은 잃게 된다. 43년생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넘어가 주는 게 좋다. 나도 언젠가 실수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도 변경되어야 할 테니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보길 바란다. 67년생 결과를 보고 싶다면 시작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79년생 안 되는 일에 매달릴 필요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91년생 욕심난다고 다길 수 없을 테니 꼭 얻고 싶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라. 행운의 수: 0.2 행운의 색: 보라색	
	원숭이띠: 아둔한 몸짓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남다른 능력이 있는 법이다. 44년생 구설이 우러되나 재운이 따라오니 이만하면 만족한 수준이겠다. 56년생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결하자. 68년생 좋은 기회라면 후회하기 전에 먼저 잡아두는 게 좋겠다. 80년생 시작이라는 단어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해보자. 92년생 자신의 길이 아니라면 미련 두지 말고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04년생 주변 사람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라.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녹색	
	닭띠: 상자 속의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먼저 열면 곤란해진다. 45년생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말고 대의명분을 보다 중요시해야 길하다. 57년생 숨겨진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수록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마련이다. 69년생 고만하면 버스는 지나간다. 중간에 내리더라도 탑승하는 게 정답이었다. 81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애초에 거절하는 게 서로 신뢰를 지킬 수 있다. 93년생 전속력으로 달렸으면 쉬도 필요하다. 하루 끝은 마시지로 마무리해 봐도 좋겠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갈색	
	개띠: 사적인 일에 공적인 일이 겹치게 되면 힘드니 넓은 곳으로 눈을 돌리자. 46년생 상대방의 말을 충실히 들어본 후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길하다. 58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내 체격까지 소모할 필요 없다. 70년생 완벽할 것 같은 일이라도 천천히 점검해야 한다. 82년생 각정은 물어두고 오늘을 즐겨보길 바란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다. 94년생 대법한 자제가 운을 불러오니 직진하고 싶은 일은 직진해도 좋다. 06년생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잘해주길 바란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주황색	
	돼지띠: 하나를 여럿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 때지만 여러모로 부족할 기운이다. 35년생 오히려 지켜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수 있다. 묵묵히 지켜보 주길 바란다. 47년생 낙상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말고 편하게 수용하자. 71년생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라도 도움을 받아보자. 인맥을 활용하면 수월하다. 83년생 평범한 하루에 실망하지 마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 95년생 자신만의 마스코트가 있다면 무리에서 튀어 보일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수: 2.4 행운의 색: 흰색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양종열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하하의 지식쇼,

몰뚨한 정보로 함께하는 출근길의 동반자!

차원이 다른 워트로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TBN 차차차 (14:05~15:55)

프로듀서: 김현정 | 진행자: 정인택, 장원나 | 작가: 윤서희

광주교통방송 대표 오락 프로그램.

정인택과 장원나의 특별한 게임!

나른함은 떨치고, 재미로 무장한 (TBN차차차)와 함께 오호호!

하이브리드 라디오 (16:05~16:55)

프로듀서: 나재규 | 진행자: 윤호준 | 작가: 한효정

정확한 뉴스, 알찬 정보, 주요 현안에 대한 명쾌한 분석!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집중 조망해보는 보도제작 시사·정보 프로그램.

달리는 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최용규, 김경아 | 작가: 정안숙

퇴근길!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드립니다.

더불어 세상사는 이야기와 웃음으로 여러분의 퇴근길을 편안하게 길라잡이 해드립니다.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의 주요 뉴스와 동네 소식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동구, 북구 등 지자체 뉴스 방송.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 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작품들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TV커머스 우리 동네 우리 장터 (못난이 김치 등)

케이블 방송이 제공하는 '가성비 TV커머스 방송', 하루 3회 전국에서 엄선된 인형도 숯꽃, 못난이 김치, 강강세우것 등 품질 좋은 농수산품을 판매한다.

방송 : 11월 25일(월)~12월 1일(일) 6:00, 8:00, 16:00

나혼자 여행지도 어디고 시즌 3 (울산광역시 편)

중소SO 8개 방송사가 공동제작한 전국 팔도의 멋과 맛을 찾는 기행다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생산도시이자 바다와 육지의 멋진 풍광이 있는 울산광역시를 찾아가다

방송 : 11월 27일(수)~11월 29일(금) 14:00~14:50

현장인터뷰 이사람 (월간 한옥, 박경철 편집장)

독일 유학생에서 한국 지검으로 그리고 헤리티지 전문가로 활동 중인 월간 한옥 박경철 편집장을 만나 그의 삶과 철학, 한옥과 전통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본다.

방송 : 11월 28일(목)~11월 30일(토) 12:25~12:45